

탈북 청소년의 정신병리와 자살과의 관련성

국립정신건강센터,¹ 아산정신병원,²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임동균¹ · 박수빈¹ · 김승현² · 임우영³ · 전진용¹

The Correlation of Psychopathology and Suicide i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Donggyun Im, M.D.,¹ Subin Park, M.D.,¹ Seung Hyun Kim, M.Sc.,²
Woo Young Im, M.D.,³ Jin Yong Jun, M.D.¹

¹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²Asan Mental Hospital, Asan,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ology and suicide i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104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e investigated the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and Rosenberg Self-Esteem Scale. We also investigated the suicide ideation, planning and attempt. The self-report was taken to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Results :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 Score($Z=-4.050, p<0.001$),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ore($t=-2.757, p<0.01$), Rosenberg Self-Seteem Score($Z=-2.328, p<0.0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uicide ideation i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ly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 Score($p<0.005$) expected the suicidal ideation.

Conclusions : The management of depression would be helpful to reduce the suicide i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KEY WORDS : Depression · Suicide · North Korean Refugee · Adolescents.

서 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탈북 과정, 남한 정착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의 경제적인 이유로 굶주림, 질병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감시로 인해 오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탈북 과정에서 발각될 것 같은 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기존 남한 사

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 탈북 청소년도 북한 내에서의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감시, 탈북 과정에서 발각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부는 탈북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들과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 부모의 탈북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은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Received: March 20, 2017 / Revised: October 25, 2017 / Accepted: November 1, 2017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n intramural grant(No 2015-10)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n Yong Jun,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127 Yongmasan-ro, Gwangjin-gu, Seoul 04933, Korea

Tel : 02) 2204-0151 · Fax : 02) 2204-0395 · E-mail : jjy826@naver.com

있다. 탈북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²⁾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외상 경험과 건강 상태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³⁾ 또한 탈북 청소년은 적응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 탈북 과정에서 오는 우울이나 심리적 외상과 함께 적응의 스트레스도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보고들을 종합해 보면, 탈북 청소년들은 기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남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은 많은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주관적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이 낮고, 한 부모 가정이거나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⁵⁾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보고도 있다.⁶⁾ 청소년에 있어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은 자살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며,⁷⁾ 청소년의 우울증은 자살과 연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⁸⁾ 정신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부모가 재대로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보고도 있다.⁹⁾

외국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난민들 역시 이동 과정에서 발각의 위협을 경험하며, 가족과 헤어짐을 경험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미국의 한 난민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21%가 우울증을 19%가 불안장애를 4.5%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살 사고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3% 였다.¹⁰⁾

이와 같이 탈북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에서의 정신건강은 자살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고찰은 이들에 대한 평가나 추후 이들에 대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의 정신병리나 이들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탈북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존감 등의 정신 병리와 자살 생각이나 자살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시내 대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대한학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대안 학교의 경우 탈북 기간과 학력 결손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성인 연령의 학생도 같이 있었지만, 대한 학교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만 24세의 대한학교 재학생은 탈북 청소년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 청소년의 성별, 탈북 당시의 학력, 연령, 복송 경험 등 사회인구학적 및 탈북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자살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울, 불안, 자존감에 대한 척도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한 유무를 조사하였다.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의 수행하였으며, 입국후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모르는 언어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해 주었다. 이 연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 IRB의 승인을 받았다.

1. 평가 척도

1) 한글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for depression)

탈북 청소년의 우울 증상 측정을 위하여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이하 CES-D)의 한글판을 사용하였다. CES-D는¹¹⁾ D는 우울 관련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0~3점까지로 응답하여 총 60점 만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한글판은¹²⁾ 조맹제와 김계희가 표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0.887이었다.

2) 한글판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탈북 청소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와 Richmond가¹³⁾ 제안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이하 RCMAS)를 사용하였다. RCMAS는 아동청소년의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총 37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당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글판 RCMAS는 최진숙과 조수철이¹⁴⁾ 한글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0.824 이었다.

3) 한글판 Rosenberg self-esteem scale

탈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¹⁵⁾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이¹⁶⁾ 한글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

bach alpha)는 0.707 이었다.

4) 자살 설문

자살 관련 설문은 기존 청소년에서 시행했던 학교 정신건강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최근 1년 이내의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각각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2.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자살, 우울, 불안, 자존감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백분율 등과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사고, 계획, 시도의 유무와 관련하여 우울, 불안, 자존감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이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시 검증을 위한 집단원의 차이가 크고, 등분산 가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t검정(t-test) 대신 비모수 통계방법인 맨 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1명(39.4%)이었으며, 연령은 19.57세였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재학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2명(59.8%)로 가장 많았다. 북송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8명(8.6%)이었으며, 남한 거주 기간은 평균 5.23년 이었다. 이들의 우울 점수는 21.28 ± 10.88 점, 불안 점수는 15.88 ± 6.33 , 자존감 점수는 35.34 ± 6.32 점 이었다(Table 1).

2. 우울, 불안, 자존감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

자살 사고를 가진 탈북청소년은 21명으로 전체의 20.19%이었다. 탈북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우울, 불안, 자존감과의 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N	% ,SD
Sex	Male	41	39.4
	Female	63	60.6
Age		19.57	3.2
Education in North Korea	None	13	14.9
	~ Elementary School	22	25.2
	~ High School	52	59.8
Experience of compulsory repatriation	No	85	91.4
	Yes	8	8.6
Years live in Korea		5.23	4.08
Depression ^a		21.28	10.88
Anxiety ^b		15.88	6.33
Self-esteem ^c		35.34	6.32
Suicide attempt	No	82	79.6
	Yes	21	20.4
Suicide planning	No	95	92.2
	Yes	8	7.8
Suicide attempt	No	95	91.3
	Yes	9	8.7

a : CES-D, b : RCMAS, c : Rosenberg Self-Esteem Scale

Table 2. Suicide ideation and psychopathology in North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U	Z
	No(n=82)		Yes(n=21)			
	Mean rank	Sum of rank	Mean rank	Sum of rank		
Depression ^a	45.97	3769.50	75.55	1586.50	366.500	-4.050***
Anxiety ^b	48.91	4011.00	64.05	1345.00	608.000	-2.075*
Self-Esteem ^c	55.46	4548.00	38.48	808.00	577.000	-2.328*

a : CES-D, b : RCMAS, c : Rosenberg Self-Esteem Scale

* : $p < .05$, ** : $p < .01$, *** : $p < .001$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 사고에 따른 우울 증상($Z=-4.050, p<0.001$), 불안 증상($Z=-2.076, p<0.05$), 자존감($Z=-2.328, p<0.05$)은 자살 사고의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able 2).

3. 우울, 불안, 자존감과 자살 계획과의 관련성

자살 계획이 있었던 탈북 청소년은 8명으로 전체의 7.69%이었다. 탈북청소년의 자살 계획과 우울, 불안,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증상($Z=2.213, p<0.05$)과 자존감($Z=1.987, p<0.05$)은 자살 사고의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불안 증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4. 우울, 불안 자존감과 자살 행동과의 관련성

자살 행동이 있었던 탈북 청소년은 9명으로 전체의 8.65%이었다. 탈북청소년의 자살 시도와 우울, 불안,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증상($Z=-3.656, p<0.001$), 불안 증상($Z=-2.398, p<0.05$)은 자살 사고의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자존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5. 탈북 청소년의 자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탈북 청소년 중 자살 계획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8명, 자살 행동을 했다고 답한 학생은 9명으로 소수여서 회귀 모형을 구성하기 어려워, 자살 사고에 대해서만 회귀 모형을 구성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나이, 복송 경험, 불안, 자존감, 국내거주기간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우울 증상($p<0.05$)이 통계학적으로 자살 사고를 예측하였다(Table 5).

결론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탈북 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존감등 정신병리와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탈북 청소년의 자살 사고 유무에 따라 우울, 불안, 자존감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Table 3. Suicide planning and psychopathology in North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uicide planning				U	Z
	No(n=95)		Yes(n=8)			
	Mean rank	Sum of rank	Mean rank	Sum of rank		
Depression ^a	50.11	4760.50	74.44	595.50	200.500	-2.213*
Anxiety ^b	50.78	4824.50	66.44	531.50	264.500	-1.426
Self-Esteem ^c	53.69	5101.00	31.88	255.00	219.000	-1.987*

a : CES-D, b : RCMAS, c : Rosenberg Self-Esteem Scale
* : $p<.05$, ** : $p<.01$, *** : $p<.001$

Table 4. Suicide attempt and Psychopathology in North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uicide attempt				U	Z
	No(n=95)		Yes(n=9)			
	Mean rank	Sum of rank	Mean rank	Sum of rank		
Depression ^a	49.17	4671.50	87.61	788.50	111.500	-3.656***
Anxiety ^b	50.32	4780.50	75.50	679.50	220.500	-2.398*
Self-esteem ^c	53.82	5112.50	38.61	347.50	302.500	-1.447

a : CES-D, b : RCMAS, c : Rosenberg Self-Esteem Scale
* : $p<.05$, ** : $p<.01$, *** : $p<.001$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B	S.E.	Sig	Exp(B)
Sex	-0.174	0.219	0.428	0.841
Age	-0.811	0.868	0.350	0.444
Experience of compulsory repatriation	1.000	1.121	0.372	2.719
Depression ^a	0.128	0.053	0.016*	1.137
Anxiety ^b	-0.129	0.093	0.167	0.879
Self-esteem ^c	-0.021	0.079	0.793	0.979
Years live in Korea	0.079	0.111	0.478	1.082
Constant	1.415	4.388	0.747	4.116

a : CES-D, b : RCMAS, c : Rosenberg Self-Esteem Scale
* : $p<.05$, ** : $p<.01$, *** : $p<.001$

변수의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 증상만이 탈북민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살 계획이나 자살 시도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특히 우울 증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이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우울이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살은 우울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¹⁷⁾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살은 우울과 충동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¹⁸⁾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인에 비해 탈북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9,20)} 청소년들도 비슷한 탈북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¹⁶⁾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이들의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자살 사고가 있는 탈북 청소년은 20.19%, 자살 계획이 있는 탈북 청소년은 7.69%,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탈북 청소년은 전체 8.6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기술하였듯이 탈북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 증상이 높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또한 가족의 지지 등 탈북 청소년의 환경에 따른 특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나 지원 기관의 발표를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은 탈북 과정에서 편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나 형제와의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한다.²¹⁾ 특히 대안학교의 탈북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지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가족의 지지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22,23)} 이러한 점도 탈북 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탈북 청소년에서 가족과의 헤어짐이 단독적인 자살과 관련된 요인인지, 가족과의 헤어짐이 우울증이나 경제적 상태 등 복합적인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높은 탈북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향후 우울, 불안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관련있는 다양한 정신병리와의 관계도 추후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남한 거주 기간은 평균 5.23년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한 거주 기간은 자살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 결과에서는 탈북 초기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어 탈북 청소년과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차이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 중 일반 학교 재학생이 아닌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대안학교 학생은 일반 학교 적응이나 문화 적응 문제로 일반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문제는 일반 학교의 탈북 청소년보다 취약할 수 있고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 중 104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의 수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 중 10대의 비율은 약 3400명 정도로 추정된다.²⁴⁾ 따라서 이들은 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탈북민의 자살 계획이나 자살 시도자의 수가 너무 작아 이를 바탕으로 회귀 모형을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수를 바탕으로 자살 사고와 함께 자살 계획이나 시도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탈북 청소년은 향후 남북 통합이나 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탈북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Kim BC, Yu SE. North Korean Defectors Pannel Study. Economic adaptatio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North Korean Refugee Foundation;2010.
- (2) 정진경, 정병오, 양재민.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2004;42:209-239.
- (3) 백해정, 김은배, 윤인진, 이영란.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07;18:183-211.
- (4)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4;16:295-308.
- (5)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 (6) 김정란, 김혜신.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014;34:310-333.
- (7) Hawton K, Saunders KE, O'Connor RC. Self-harm and suicide in adolescents. Lancet 2012;379:2373-2382.
- (8) Galaif ER, Sussman S, Newcomb MD, Locke TF. Suicidality, depression, and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 review of empirical findings. Int J Adolesc Med Health 2007;19:27-35.
- (9) Jeon HJ, Bae JM, Woo JM. Recent statistics and risk factors of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Med Assoc 2013; 56:93-99.
- (10) Ao T, Shetty S, Sivilli T, Blanton C, Ellis H, Geltman PL,

- Cochran J, Taylor E, Lankau EW, Lopes Cardozo B. Suicidal Ideation and Mental Health of Bhutan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J Immigr Minor Health* 2016;18:828-835.
- (11)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7;1:385-401.
- (12) 조맹제, 김계희.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s(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3;32:381-399.
- (13) Reynolds CR, Richmond BO.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1985.
- (14) Choi JS, Cho SC.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0;29:691-701.
- (15)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1965.
- (16) 이훈진, 원호택.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5;14:83-94.
- (17) Harwitz D, Ravizza L. Suicide and Depression. *Emerg Med Clin North Am* 2000;18:263-271
- (18) Renaud J, Berlim MT, McGirr A, Tousignant M, Turecki G. Current psychiatric morbidity, aggression, impulsivity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J Affect Disord* 2008;105:221-228.
- (19)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5;17:467-484.
- (20)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남한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9; 21:329-348.
- (21) 김희경, 신천균.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5;20:347-361.
- (22) Choi SJ, Choi S. Influence of Peer and Patient-Child Relationship on the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am Environ Res* 2016;54:307-319.
- (23) Lee JY, Hur JH.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suicidal ideation. *Korea J Youth Couns* 2003;11:85-95.
- (24) North Korean Refugees Reoprts. Ministry of Unification;2017.

국문초록

연구목적

탈북 청소년의 정신병리와 자살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국내에 입국 후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탈북 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글판 역한연구센터 우울척도, 한글판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한글판 Rosenberg Self-Esteem Scale와 함께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한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자살 사고를 경험한 탈북청소년은 21명으로 전체의 20.19% 이었으며, 우울 증상($Z=-4.050$, $p<0.001$), 불안 증상($Z=-2.076$, $p<0.05$), 자존감($Z=-2.328$, $p<0.05$)은 자살 사고의 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우울 증상($p<0.05$)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자살 사고를 예측하였다.

결론

탈북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관심이 탈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우울 · 자살 ·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